

■ 아이티와 재해의 역사적 형성 과정

앤소니 올리버 스미스(Anthony Oliver-Smith)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0년 5월 31일, 리히터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페루 북부 해안을 강타했다. 이 지진으로 해안지대와 안데스 산맥 북부와 중부의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다. 사망자만 약 6만 5천여 명. 부상자는 14만 명을 넘었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를 합한 크기의 지역에서 건물 80%가 전파되거나 반파되었다. 필자는 페루 지진 발생 몇 달 후부터 10년 동안 재해복구 연구를 시작했다.¹⁾ 이 연구를 통해 필자가 묻고 싶던 물음의 하나는 이거였다. 페루 지진은 왜 그렇게 파괴적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려면 안데스 지방의 취약성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봐야 했다. 페루는 자연재해가 흔히 발생하는 곳이다. 그런데 페루의 식민 시기와 공화정 시기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페루는 자연재해 앞에 그토록 취약한 것일까? 연구가 진행될수록 1970년의 재난은 500여 년 전의 페루 정복과 식민화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였다. 정복 이전의 페루 원주민들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문화적 적응방식(도시 거주 양식, 건축 재료, 잉여의 재분배)에 따라 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페루의 원주민들은 고질적인 지진이 닥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페루의 정복과 식민화는 이러한 복원력을 파괴시켰다.²⁾

1) Anthony Oliver-Smith, *The Martyred City: Death and Rebirth in the Andes*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86).



지진으로 파괴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http://www.infiniteunknown.net>>

- 2) Anthony Oliver-Smith, "Peru's Five-Hundred-Year Earthquake: Vulnerability to Hazard in Historical Context," in Ann Varley, ed., *Disasters, Development and Environment* (London: John Wiley and Sons, 1995), 31-48.

스페인 식민지배자들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실행한 정책, 특히 스페인 식 도시계획과 건축방식의 일환이자 사회통제와 교화를 목적으로 원주민들을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시킨 것은 고질적인 지진 다발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위험하고 취약한 환경을 조성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식민체제였다. 식민체제는 끊임없이 잉여를 착취했고, 이는 사람들을 수세기 동안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다. 안데스 지역의 세계체제 편입이 페루에 극심한 경제적 저발전을 낳았던 것처럼 말이다.

1970년 페루 지진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재해는 하나 같이 그 기원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이라는 미해결의 문제에 있음을 드러냈다—이보다 더 작은 규모의 재해도 마찬가지다.³⁾ 니카라과의 마나과 지진(1972), 과테말라 지진(1974)⁴⁾, 멕시코시티 지진(1985), 허리케인 미치(1998)와 카트리나(2005), 아이티와 칠레 지진(2010)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재해를 분석하면 그 근원이 역사 과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에서는 국가, 지역, 지방에 따라서 위험과 취약성의 정도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 과정은 각 사회 특유의 발전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 위험 지역 내의 취약한 거주 시설, 건축 법규의 부재나 아니면 주로 비공식적인 거주 부문에 대한 미약한 법 집행, 그리고 개인·가족·사회의 복원력을 잠식하는 빈약한 위생 조건, 농촌과 도시 환경의 악화와 오염, 제도의 미비, 부패와

3) Andrew Maskrey, *Terremotos en el tropico humedo* (Bogotá, Colombia: La Red/ITDG, 1996).

4) [역주] 필자의 연도 착오로 보인다. 과테말라 대지진은 1976년 2월 4일 발생했다.

법망 회피, 사회적 지배 방식, 철저히 왜곡된 부의 분배와 같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타났다.

즉, 재해는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신의 뜻도 아니다. 재해는 사회·경제·환경의 역사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다. 게다가 재해는 단순한 재앙 이상이다. 재해는 시간을 통해 전개되는 과정이며, 그 원인은 역사에 깊게 박혀 있다. 따라서 재해는 재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인 뿌리와 현재의 전개 양상, 그리고 미래의 잠재성을 안고 있다. 사실상 한 사회의 재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취약성의 패턴, 사회기반시설, 정치사회 구조, 생산양식, 이데올로기 등이 만들어 낸 필연적 사건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곳이 아이티다. 어느 면에서 2010년 1월 12일의 지진은 500여 년 전부터 형성된 지진의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대다수 국가가 그러하듯이, 아이티 역시 엄청난 비극과 파괴의 역사를 경험했다. 식민시대 이스파놀라(Hispaniola)라고 부르던 섬의 원주민인 타이노(Taino)족은 1493년 스페인 이주민들과 함께 들어온 유럽의 질병 때문에 많은 수가 죽었다. 그로부터 125년 넘게 스페인과 다른 유럽 국가는 간헐적으로 이스파놀라 섬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프랑스 서인도회사는 이스파놀라 섬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여 생도맹그(Saint-Domingue)라고 명명하고, 식민체제를 확립했다. 17세기 말엽에 이르러 수출용 설탕과 커피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에 필요한 노동력 획득을 위해 노예제도가 도입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예제도는 아이티를 재해에 취약하게 만든 근본적인 요소다. 18세기 말엽, 아이티의 아프리카 노예는 유럽에서 소비되는 설탕의 40%, 커피의 60%를 생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익은 유럽인 플랜테이션 농장주, 그리고 농장주와 노예 사이에서



대규모 지진이 강타한 칠레 탈카우아노(Talcahuano)에서 약탈자들에게 경고하는 경찰(3월 2일). <http://www.boston.com/bigpicture/2010/03/chile_nine_days_later.html>

태어난 자식들(물라토)에게 돌아갔다. 프랑스 식민체제는 물라토가 자유민이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노예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런 물라토 계급은 독립 이후 곧바로 국가 엘리트가 되었다.⁵⁾

1789년 프랑스혁명의 열기는 생도맹그의 유색인(물라토와 자유노예) 엘리트들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래서 1790년 이들의 주도로 일련의 개혁과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곧 국가 규모의 노예 반란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1804년 생도맹그는 독립을 선포하고, 타이노 족이 부르던 이 섬의 명칭, 즉 아이티를 국명으로 정했다. 아이티는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되었다. 하지만 프

5) Alex Dupuy, *Haiti in the World Economy: Race, Class and Underdevelopment Since 1700* (Westview Press, 1989).

랑스는 노예와 토지 형태의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9천만 골드 프랑을 요구했고(처음에는 1억 5천만 프랑), 배상금 지불을 약속할 때까지 아이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티는 독립 직후 프랑스의 침략 위협에 시달렸으며, 1825년 배상금 지불에 동의할 때까지 프랑스, 영국, 미국의 파괴적 통상금지령에 고통 받았다. 아이티는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고리의 외채를 도입했으며, 1947년에야 채무 상황이 끝났다. 따라서 아이티는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부채와 통상금지령의 압박 속에서 겨우 명맥만 이어 나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때 ‘카리브의 진주’ 라고 부를 정도로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이던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다.⁶⁾

19세기 초반, ‘건방진’ 혹은 공화국을 혼내 줄 목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아이티를 정치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부채 상환 의무를 통해서 아이티의 자원, 즉 설탕, 커피, 인디고로 벌어들인 수입을 중심부 국가—처음에는 프랑스, 1915년 미국의 침공 이후에는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⁷⁾ 아이티 정부와 엘리트들은 외국, 주로 미국의 착취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엘리트들은 부와 권력을 축적했다. 반면 아이티의 자원은 바닥나고 있었고, 폭력, 군사화, 부실한 국가 운영, 부패로 아이티 주민들은 빈곤해졌지만, 아이티의 엘리트들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거나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⁸⁾

6) *Ibid.*

7) Seumas Milne, “Haiti’s Suffering Is a Result of Calculated Impoverishment,” U.K. *Guardian*, January 20, 2010.

8) Mark Schuller, *An Anthropology of Disaster Capitalism*, unpublished ms. (nd).

지난 4반세기 동안 형성된 아이티의 빈곤과 취약성의 역사적 구조는 최근에 전개된 국면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졌다. 잔인한 파파 독(프랑수와 뒤발리에) 독재를 뒤이은 베이비 독(장클로드 뒤발리에)의 파멸적인 통치 기간에 전례 없는 규모의 외채가 누적됐다. 이는 독재자의 착복이나 노골적인 횡령 때문이었다. 도둑정치나 다를 바 없던 베이비 독의 통치 기간에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는 돼지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아이티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라고 주문했다. 돼지는 아이티 농민들에게 저축이자 긴급자금이었으며, 영양분을 의미했다. 따라서 돼지 살처분은 아이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빈곤을 야기했다.⁹⁾

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지자 아이티 농민들은 숲을 굶기 위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벌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숲이 황폐화되었다. 대지주를 지원하는 USAID 프로그램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립하도록 장려했다. 반면에 IMF가 도입한 관세 인하로 아이티 시장은 개방되었는데, 이는 과잉 생산한 미국의 미곡생산업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로써 아이티의 주요 작물 생산 기반은 약화되고, 농촌 경제는 무력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아이티의 도시는 미국계 회사의 수출용 생산기지가 되었다. 농촌 경제의 파탄과 수출용 생산기지의 확대로 대규모의 아이티인들이 도시로 이주하였다. 슬럼가에 사는 빈곤한 이주자들과 산비탈에 자리 잡은 판자촌 사람들은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 출신 이주자들의 일자리 수요는 공급을 빠른 속도로 앞질렀다. 이는 슬럼가에 밀집

9) Bernard Diederich, "Swine Fever Ironies: The Slaughter of the Haitian Black Pig," *Caribbean Review* 14, no. 1 (winter 1985): 16-17.

한 주민들의 빈곤을 심화시켰다.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감소했다.¹⁰⁾

따라서 2010년 초 아이티가 자연재해에 놀라울 정도로 취약한 것은 당연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지지부진하나마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것도 환경안보나 위험경감 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비공식적 거주와 더불어 건축법규의 부재, 광범위한 영양결핍, 기아, 질병, 깨끗한 물과 전기에 대한 접근취약성, 불충분한 교육시설과 보건시설, 국가와 지방자치 차원의 서비스, 범죄와 부패는 아이티를 재해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진학자들이 강력한 지진의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대부분의 아이티인들은 지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취약한 사회 구조 때문에 정부 추산 30만 명 이상의 아이티인들이 사망하였다. 포르토프랭스에 난립한 임시 주택은 붕괴되었으며, 불충분한 기초 구호 서비스마저도 중단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위협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으며, 궁핍한 환경 속에서 100만의 사람들이 피난처도 없이 우기와 허리케인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아이티 지진이 발생한 지 5주도 채 되지 않아 500배 이상 강력한 지진이 칠레를 강타했다. 진원지의 깊이가 깊었고, 위치 또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아이티처럼 수십만 명이 아닌, 수백 명에 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망자 수의 차이는 진원지의 깊이와 위치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두 나라를 특징짓는 취약성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칠레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10) Leah Chavla, "Has the US Rice Export Policy Condemned Haiti to Poverty?," *Hunger Notes*, April 23, 2010.

정부와 국민들은 사전정보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칠레에는 훌륭한 건축법이 1930년대에 처음으로 제도화되었고, 이후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 아래 현대화되었다가 1985년 다시 보장되었다.¹¹⁾

대조적으로, 아이티는 어떠한 건축법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수도 포르토프랭스 주민의 대다수는 뻥뻥이 들어선 슬럼가의 허술한 집에 살았다. 게다가 아이티의 만연한 부패를 감안하면, 공공 부문에서 건설한 건물조차도 공학적 고려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축기준 미달일 것이 분명했다. 공공건물의 높은 손상률과 붕괴율은 고위급 공무원들의 부패가 낳은 결과가 분명하다. 이들이 비리를 눈감아 줌으로써 15개의 연방정부 건물 중 13개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지수 순위에서 아이티를 168위, 칠레를 25위라고 발표했다.¹²⁾

발전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국 모두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아이티보다 인간개발지수(HDI)가 훨씬 더 높다. 인간개발지수는 인간 발전의 세 가지 기본적 측면—건강(기대 수명), 지식(성인문맹률과 초중등학교의 등록률), 생계 수준(1인당 GDP)—에서 182개 나라들의 평균 성취도를 측정하는 혼합지수다. 「2009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칠레는 상위개발 범주에 들어가는 44위를, 아이티는 중위개발 범주에서도 밑바닥에 가까운 149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하위개발 범주—24개국에서 23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가까운 것이다.¹³⁾ 빈곤과 저발전의 수준이 취약성과 동일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 높은

11) Naomi Klein, “How Socialism Protected Chileans From Earthquake Fall-Out,” *The Nation*, March 4, 2010.

12)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9,” Transparency International, available at <transparency.org> .

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HDI Ranking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dr.undp.org/en/statistics> .

취약성과 일치한다. 또한 이런 지표들은 칠레에는 특정 수준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적인 국가기구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이는 지진으로 인한 위기 상황과 그 여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반면 아이티 정부는 재난이 발생 후 며칠 동안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하지만 아이티인과 칠레인이 재난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을 보면, 시민과 국가의 관계는 약간 도발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국가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아이티에서 약탈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아이티 주민들의 대응은 사회적 연대와 자발적인 조직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집단적인 노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도와주었던 것이다. 또 약탈자들은 공동체의 응징을 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기구가 있는 칠레에서 주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대응에 의존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자 개인주의적 충동이 우세하게 되어, 아이티보다 더 많은 약탈과 사회폭력이 발생했다.

칠레의 저널리스트 라울 소르(Raúl Sohr)는 주민 사이의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조직화 능력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위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개인주의적 이익을 추구하기를 부추기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자유주의 모델의 부식 효과 탓이라고 말했다.¹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자원 제약이 공동체의 연대와 가정 내의 협력을 부식시켰고, 이것이 과거에 빈민들이 형성하고 있던 촘촘한 사회 네트워크를 약화시켰다는 연구결과는 칠레와 아이티의 재난 대응에서 나타난 차이와 일치한다.¹⁵⁾ 따라서 칠레에서는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재건 이

14) Raúl Sohr, "Historia de dos terremotos," *La Nación* (Santiago, Chile), March 5, 2010.

15) Mercedes González de la Rocha, "Economic Crisis, Domestic Reorganization and Women's Work in Guadalajara, Mexico," *Bulletin of Latin American*

상의 많은 것을 복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면, 아이티는 재건 기반이 될 잠재적인 사회 자원이 예상보다 더 풍부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어떻게 지속가능하며, 취약성을 줄이고, 사람들이 가족과 공동체 차원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티의 재건을 야기한 복잡한 환경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변수를 다룰 수 있을까? 즉, 아이티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재건과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하지만 극도의 취약성을 야기한 체제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진 이전의 정권은 지진의 여파 속에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영을 재정비했다. 부패와 무능의 정도와는 별개로 뛰어난 복원력을 보여 주었다. 사실, 아이티의 지진 참사는 사회적·정치경제적 역사, 특히 20세기의 역사에서 발생한 변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명확한 입증이였다. 그리고 재해복구는 이에 대한 체제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진을 참혹하게 만든 복잡한 요소들을 재해복구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 즉, 국제적 세력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아이티의 재해 취약성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지진 참사로 드러난 징후들뿐만 아니라 재해의 주요하고 부차적인 원인까지도 다루는 정책과 실천에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아이티 지진이 초래한 파괴와 죽음의 원인을 국내외적으로 재해를 야기하고 유지시키는 자본과 상품의 흐름과 경제사회적으로 굳어진 관행에서 찾는다면, 진정한 재해복구란 단지 물리적 복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티를 세계체제 내의 주변부적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재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구조

Research 7, no. 2 (1988): 207-23; Agustín Escobar Latapi and Mercedes González de la Rocha, "Crisis, Restructuring and Urban Poverty in Mexico,"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7*, no. 1 (1995): 57-76.

의 제약 속에서 환경 악화와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해복구 방법을 찾아내 실천하는 것이다. 지진 발생 후, 아이티는 경제 구조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지역의 현실과 사회적 요구를 훨씬 잘 반영하도록 정치권력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련의 기회들이 현재의 경제적 제약 내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티의 정치경제 구조가, 비록 재해복구라는 동기와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내적·국제적 세력이 고유의 형식과 실천을 통해 깊이 각인해 놓은 일련의 고질적인 조건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1월 12일 지진으로 인한 아이티의 파괴와 고통은 독립 이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다. 노예제 폐지와 독립투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서 시작된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증적으로 아이티인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역에 심각한 취약성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지진 발생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아이티의 취약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며, 동일한 세력이 야기하고 또 유지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

[번역: 김종규]

앤소니 올리버 스미스 - 미국 플로리다 대학 인류학과 명예교수. 라틴아메리카의 강제이주와 재난 후의 사회조직 문제를 연구한다. 엮은 책으로 *The Angry Earth* (1999)와 *Development & Dispossession* (2009) 등이 있다.
